

## 일본의 수입절화 동향분석

오사카지사 자체기획단신 1호 (2017.2.14.)

### 일본 수입 절화시장 현황

- 일본 절화시장은 국내 생산금액은 소폭 증가, 수입절화는 지속 증가 추세
  - 2015년 수입산 비중 18.6%로 2010년과 비교하여 3.3% 증가
  - 2015년 일본 절화생산액은 210,000백만엔으로 2010년 대비 2.7% 감소
  - 2015년 절화수입액은 47,829백만엔으로 2010년 대비 22.9% 증가



### <일본 절화류 생산 및 수입금액 추이>

(단위 : 백만엔,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일본내 생산금액	215,800	201,400	207,500	205,400	208,600	210,000
수입금액	38,906	37,433	41,962	45,409	45,240	47,829
계	254,706	238,833	249,462	250,809	253,840	257,829
수입산점유율(%)	15.3	15.7	16.8	18.1	17.8	18.6

\* 재무성 무역통계 참고(절엽류 포함)

## 절화 종류별 수입현황

### ● 절화 국가별 수입현황(통관기준)

- '15년 절화 수입 상위 5개국은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베트남
- 콜롬비아는 국가·지역별로 처음으로 수위로 차지했으며, 2011년과 비교하여 콜롬비아는 4.9%, 중국은 0.5% 증가
- 말레이시아는 3.5%, 태국은 1.3%, 대만은 0.4% 점유율 하락을 보임. 말레이시아는 국화, 콜롬비아는 카네이션, 태국은 난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은 근거리라는 장점과, 저렴한 생산단가, 품질향상 등을 바탕으로 카네이션과 국화를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최근, 환율, 물류비용, 일본시장에서의 고급품 부진 등으로 인해 대일 수출 감소가 계속되고 있으며 2015년 수입실적은 596백만엔으로 점유율 1.5%까지 하락을 보임

### <국가별 절화 수입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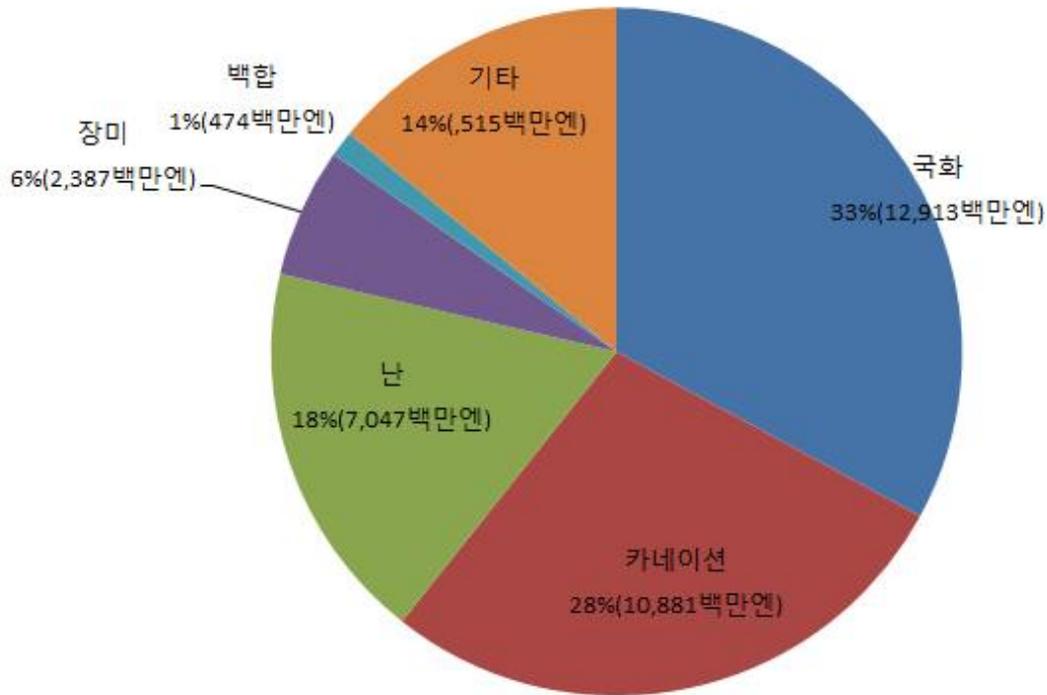
(단위 : 백만엔, %)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가명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국가명	금액	구성비
말레이시아	8,052	25.9	9,681	25.5	9,286	24.8	콜롬비아	9,293	23.7
콜롬비아	5,858	18.8	8,134	21.5	8,689	23.2	말레이시아	8,794	22.4
중국	3,269	10.5	4,230	11.2	3,848	10.3	중국	4,304	11.0
대만	3,010	9.7	3,644	9.6	3,577	9.5	대만	3,632	9.3
태국	2,779	8.9	2,912	7.7	2,876	7.7	베트남	3,239	8.3
기타	8,177	26.2	9,317	24.6	9,167	24.5	기타	9,955	25.3
합계	31,145	100.0	37,918	100.0	37,443	100.0	합계	39,217	100.0

### ● 수입절화 종류별 구성비(통관기준)

- 2015년 수입절화의 종류별 수입비중을 살펴보면 국화 32.9%, 카네이션 27.7%, 난 18.0%, 장미 6.1%의 구성비를 보이며 4종류의 합계가 84%의 점유율을 보임

## <2015년 수입절화의 품종별 구성비>



### 수입산 절화 유통동향

- 수입산 절화는 일본의 단경기나 저가 상품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상품에 집중되고 있음
  - 국화, 난 등 관혼상재용 절화는 연중 수요가 있어 각 품목별 일본 단경기 시 수입산 수요 발생
  - 최근 대형유통업체, 절화 취급전문 소규모 체인점 등에서의 저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 콜롬비아의 카네이션, 케냐와 인도의 장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스프레이 국화, 한국의 백합과 스프레이 국화 등에 대한 수요 증가
  - 절화류 외 비쭈기나무 등 엽류에 대해서는 불화 등의 연중 수요가 있어 정기적인 수입으로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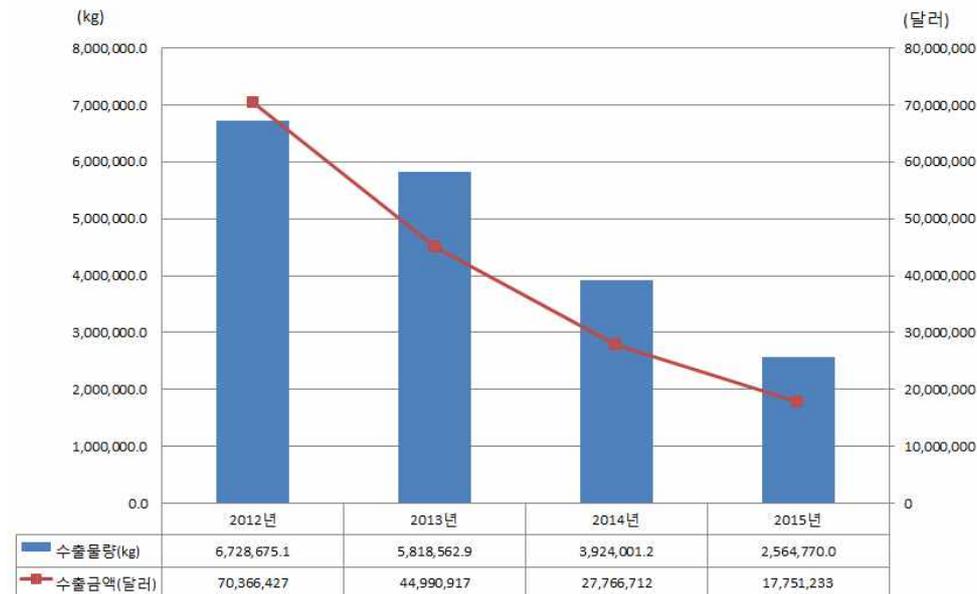
### <국가별 절화류 비중분석(2015년 수입통계 기준)>

수입국	주요 상품 수입 및 금액(엔)/ 비중(%)	절화류 총수입금액 (엔)	비고
콜롬비아	카네이션 7,833,796 (84.3%)	9,293,405	절화 수입 1위
말레이시아	스프레이국화 8,405,983 (95.6%)	8,793,957	절화 수입 2위
중국	스프레이 국화 1,876,176 (43.6%) 카네이션 1,721,628 (40.0%)	4,304,401	절화 수입 3위
케냐	장미 1,054,387 (89.6%)	1,176,873	
인도	장미 194,106 (96.7%)	200,792	
베트남	스프레이 국화 2,120,635 (65.5%)	3,239,223	
한국	백합 430,564 (48.4%) 스프레이 국화 20,9859 (23.6%)	889,883	
태국	난 2,734,183 (91.3%)	2,996,187	

\* 재무성 무역통계 참고(절화류 총수입금액은 카네이션, 스프레이국화, 장미, 백합, 난, 절화신선물 기타 금액을 기준)

- 한국산 절화의 '15년 2,564톤, 17,752달러로 2012년과 비교하여 물량 61.8%, 금액 74.6%의 감소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주력 3대 절화인 장미, 백합, 국화의 한국내 생산량 감소, 일본의 수입처 다변화 등으로 인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한국산 화훼류 대일 수출 추이>



\* Kati 무역통계 참고

## 변모하는 수입절화 2020년 전망

- 일본시장에서의 수입산 절화는 대형유통업체 물량 증가가 예상됨
  - 대량 소비가 가능한 양판점에서의 저가격에 의한 물량공급 증가 예상
  - 유통업체와 수입상사가 연계한 현지의 안정적 생산관리 체계구축과 환율 등에 의한 가격변동 관리
    - \* 2015년은 엔저 요인으로 절화 수입물량은 감소, 수입금액은 증가를 보였지만, 향후 엔고가 진행된다면 수입단가 하락으로 물량 증가 예상
- 수입산 절화의 품질향상으로 일본산과의 경쟁
  - 최근 말레이시아의 국화, 콜롬비아의 카네이션 등은 일본산 절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또한 일본 국내시장에서 요구하는 상품에 특화하여 재배되는 심비지움(뉴질랜드), 장미(케냐, 인도, 에콰도르), 스프레이 국화(말레이시아) 등의 수입이 증가 예상
- 수입절화의 향후 일본 시장에서 시장규모추이는 2015년 392억엔에서 '16년 1.5% 증가한 400억엔이 예상되며, 2020년은 '15년대비 10% 증가한 431억엔이 예상(\*일본 야노경제연구소 추계)
  -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절화류 소비 확대 기대

## 시사점

- 일본의 절화 생산은 고령화 등으로 매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반면, 수입의존도 증가와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등으로 인한 수요증가로 2020년까지 2015년 대비 10% 증가한 431억엔의 수입확대가 예상되는 바, 한국의 물류적인 이점 등을 잘 활용하여 대일 수출확대의 기회로 만들 필요성이 있음

※ 참조 : 야노경제연구소